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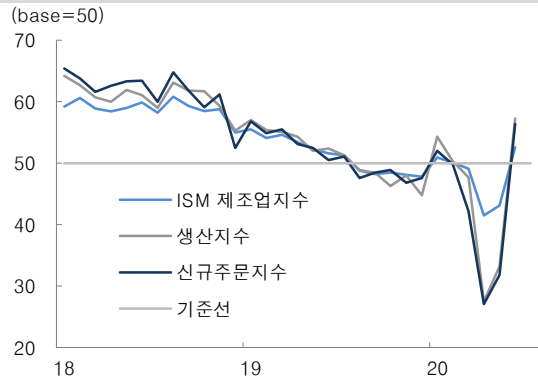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서프라이즈 모멘텀에 둔감해진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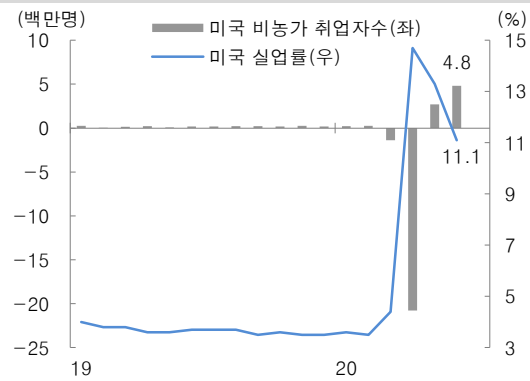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중국/유럽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미국은 6월 소비자신뢰지수, ISM 제조업지수, 고용지표 모두 서프라이즈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50을 넘어 2개월 만에 확장국면에 진입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고용지표도 비농업 취업자수가 480만명 급증하며 실업률은 11.1%(예상치 12.4%)로 레벨다운 되었다.
- 지난주 후반 다양한 호재, 서프라이즈 모멘텀 유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 폭과 탄력은 제한적이었다. 호재에 대한 주식시장의 민감도는 상당부분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상당기간 동안 과열/밸류에이션 부담에 노출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188%로,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 현재 글로벌 증시는 더 강한 모멘텀과 상승동력이 필요한 지수 레벨과 밸류에이션 수준에 위치해 있다. 펀더멘털/이슈 서프라이즈가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은 기간조정 양상을 이어갈 것이고, 펀더멘털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식시장의 단기 가격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펀더멘털 회복추세가 지속되더라도 투자자들의 눈높이, 해석, 인식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식시장은 펀더멘털과의 괴리를 축소국면에 있어 기간조정과 가격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겠다.
-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향후 경기/증시의 방향성과 추세는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 현재 지수레벨, 밸류에이션 수준, 투자자들의 인식/높아진 눈높이 등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레벨업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2/4분기 실적시즌은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낮추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에 증시 민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호재/서프라이즈 모멘텀에 둔감해지며 KOSPI도 3주째 2,1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추격매수는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7월에는 경제지표/기업실적/이슈 등을 확인하고 KOSPI 매매/대응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림 1. ISM 제조업 지수. 확장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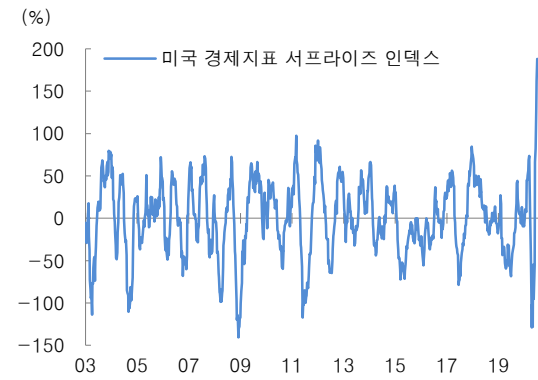
자료: ISM,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2 개월 연속 고용개선/서프라이즈 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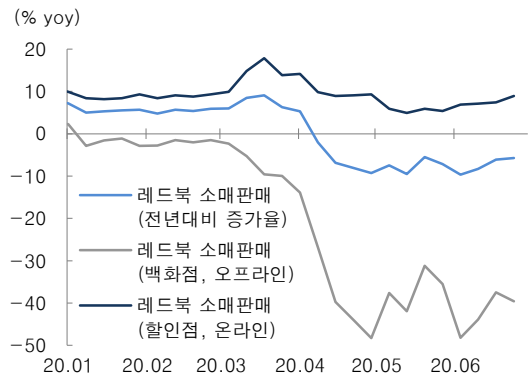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부, CE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 03 년 이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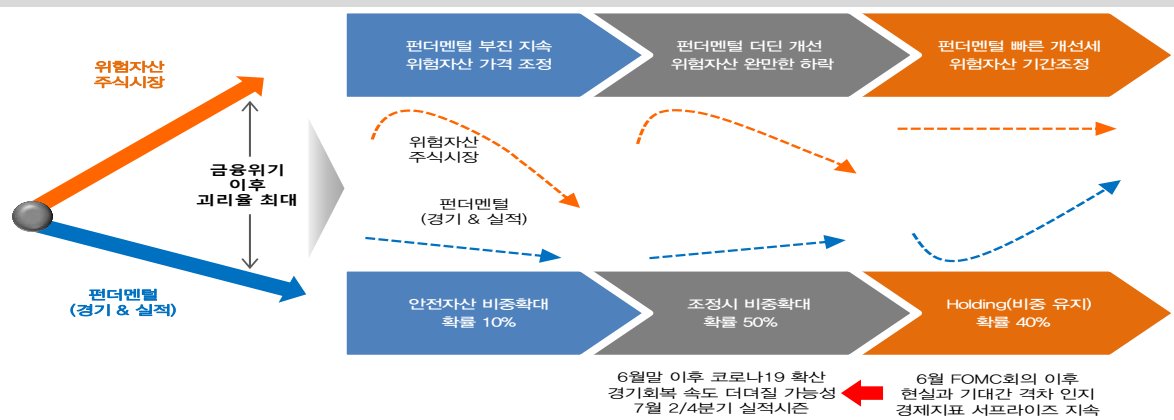
자료: CM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주간 소매판매 증가율 회복속도 확인 필요



자료: CM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축소, 예상 시나리오. 기간조정에서 단기 가격조정으로 전환 가능성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